

너희의 억울함,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자

작성일 : 2010. 11. 26. (금)

작성자 : 김기자 (서울 주진리교회)

2007년도 4월 해외 마지막 설교 “하늘과 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중 “우리가 뭐 그리 잘못된 게
많다고 괴롭히지~” 라는 말씀에 저절로
영도 육도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인데
그 심정은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시간에 교회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
주님을 찾으며 깊은 통성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부르자
갑자기 소리 없는 눈물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주님은 소리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들어보아라.
억울하냐?

(“네, 억울합니다. 섭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가서 기죽지 않고...”)

그렇다.
나 역시 억울하고 억울해서 내 속이 상하니
네 하고자 하는 것을 속히 하라.
너의 말이 맞다.
여기서 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
더 있겠냐고 물었다.
기도하라.
억울하고 답답하니 크게 기도하라.
차근차근 하나씩 낱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예 집중하라.
섭리사 부르짖음을 내가 깊이 듣고 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하는 그 소리가 매일 매일
끊어지지 않게 고하라.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심에
기뻐하며 고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더 고하라.
더 깊이 고하자.
더 기뻐 기도하라.
너의 하나님은 너의 편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고하라.
찬양하라.
찬양이 너의 삶이 되게 하라.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하라는
너희 참 스승의 고백이니 따르라.
기뻐 따르라.
정중히 따르라.
스승의 정신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어이할꼬!
그 정신에 그 마음에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밖에 없는 것을 어이할꼬!
절세미인이 온다 해도 네 스승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여
그의 순결을 빼앗으려
갖은 유혹 끝에 거짓말로 요셉을
사탄의 소굴 보디발 아내의 방에
들어오게 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뒤로 하고
요셉을 취하길 너무나 뜨겁게 원했다.
하지만 요셉은 당당하게 말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 외의 어떤 것도 가까이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절과 순결을 지키고
그 방을 나가려 할 때
사탄과 함께한 보디발 아내는
내 사랑 요셉의 옷을 사정없이 찢었고
또한 자기 옷 역시 스스로 찢고 벗어던지며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떠나가도록
목청 높여가며 말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저 요셉 놈이 감히 내 몸을 만지고
나를 강간하려 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했지만 사탄들은 요셉을
깊은 함정에 넣어 버렸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량한 요셉을
그곳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나라 총리대신으로 세워

하나님 뜻을 정녕코 이루시고 말았다.

그렇다.

억울하다 했으니 그 만큼 더 선생을 위해
기도로 탄탄하게 무장하라.

기도로 더 무장, 무장이다.

사랑이노라.

사랑만이 오직 살릴 수 있는 길이며
사랑만이 육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며
사랑만이 무거운 십자가 끌고
승리의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길이며
사랑만이 이 절대 진리의 섭리길
오르고 오를 수 있노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이 섭리길
사랑의 한 없이 갈 수 없는 이 섭리길
오직 절대 진리 섭리길이니라.

자, 고개를 들어 보아라.

네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아라.

자,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내 사랑
섭리 신부들이 보이느냐?

이들은 진정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느냐?

선생 직강 말씀의 위력이니라.

선생 모습 한 번만 봐도

그 영의 힘이 단단해지고 사탄이 물러가고

기도의 강한 물고가 터져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니라.

선생의 위력이다.

몇십 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몇백 년이 지나도 또, 천년사 길이길이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전해질

위력의 진리 말씀이니라.

선생이 그만큼 눈물겹게 세운

위대한 조건의 대가니라.

선생 걱정마라.

선생은 날마다 한 단계 열 단계 백 단계

점점 올라가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노라.

진짜 걱정은 너희다.

날마다 거듭나고 부활되어야 하는데

너희 영혼육이 진정 걱정이다.

더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의 완전을 만들라.

만들지 않고는 그의 곁에 있을 자 없으니

더 높게 비상하자.

수준을 높이고 거듭나라.

부활하라.

휴거하라.

재림 맞자.

사랑한다.